

**결속력 강한 학연 그룹은
상위 10개 그룹 중 절반이 의대 동문
고대 출신은 학과 상관없이 잘 뭉쳐**

연세대 양재진(행정학)교수는 “전통 명문이 쇠락하면서 부상한 신흥 명문이 20여 년 뒤 강한 파워 엘리트 집단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특정 학교 출신의 엘리트 독점구조가 해체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취재팀 조사 결과 엘리트들은 대학이나 전공에 따라 뭉쳐 있었다. 이들이 바로 동문의 힘을 보여주는 학연그룹이다.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경희대 등의 의대 동문들은 결속력이 제일 강해 ‘의료인의 힘’을 과시했다. 상위 10개 학연 그룹의 절반이 의대 동문이었다. 서울대 법대와 공대, KAIST, 고려대 동문들도 끈끈했다.

이들 학연그룹 가운데 엘리트 1192명이 포함된 서울대 의대 동문이 가장 컸다. 전체 학연 1위인 양

영태 치과 의사와 서울대 의대 김주현 교수(흉부외과), 이명철 교수(핵의학과) 등이 중심에 있다. 의대의 학연이 진한 것은 6년 이상 함께 공부하고, 졸업 후에도 최소 4년 이상 걸리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며 동고동락하기 때문이다.

IT 벤처 스타가 많은 서울대 공대와 KAIST 동문(엘리트 280명)도 끈끈하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홍 포항공대 교수(전자공학)가 대표 인물이다. 이 그룹에는 서울대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뒤 KAIST

에서 석.박사 코스를 밟은 사람이 많다. 지난해 나스닥 상장 성공한 반도체 설계 벤처기업 ‘리디스테크놀로지’의 안성태 대표, 세계적인 온라인게임 업체로 성장한 넥슨의 김정주 대표, 네이버와 한게임으로 유명한 NHN의 이해진 부사장 등이 서울대 공대-KAIST 출신이다. 이 중 박병원 재정부 차관의 학연이 흥미롭다. 서울대 법대(학.석사) 출신인 그는 KAIST에서 산업공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KAIST 산업공학과 출신자들과 이어져 결과적으로 법대와 공대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차관은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법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KAIST에 진학했다”며 “두 분야의 인물들과 교류할 수 있는 데다 경제와 과학기술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고려대 출신들의 결속력도 강했다. 266명이 이 학연집단에 들어 있다. 이들은 학과에 상관없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강한 동문 의식을 갖고 있다. 고려대 교우회 정창교 사무총장은 “학우들은 팀워크와 적응력이 뛰어나 사회생활도 잘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동문은 다양한 경력의 엘리트(95명)들이 모인 게 특징이다. 1959년 국내 최초의 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된 이래 고위급 행정 관료와 학계 인사들이 동창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행정대

학원 김광웅 교수는 “고시에 합격해 성공하려면 당연히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야 한다고 인식돼 엘리트들이 몰려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기연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염돈재 전 국정원 해외담당 차장, 정우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염재호 고려대 교수 등이 동문이다.

1. KAIST · 이대, 90년대부터 ‘엘리트 명문’ 출신 대학 다양화... ‘허브 대학’ 격차 줄어 경북대 · 부산대 약진... 하버드대도 등장

지난해 말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수는 171개. 40년 전인 1965년보다 2.6배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에 몰려 있던 엘리트 배출 창구의 ‘쏠림’ 현상은 80년대까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이들 대학 출신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견고한 아성을 다른 대학 출신들이 뚫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386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90년대부터 점차 줄어들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이화여대 등이 신흥 명문으로 떠오르면서 엘리트 배출 창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엘리트가 가장 많이 거쳐가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난 40년간 국내외 1545개 교육기관(고교,

대학, 대학원)과 엘리트를 주고받았다. 고교가 서울대 합격자를 낸 경우, 서울대를 나와 KAIST, 하버드대 등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타대학 출신이 서울대에 들어온 경우 등 어떤 형태로든 서울대와 엘리트 교류한 교육기관이 1545개라는 뜻이다. 서울대가 엘리트 교류의 허브(중심)였던 셈이다.

반면 2~6위에 오른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성균관대는 서울대가 엘리트를 주고받은 교육기관 수를 100으로 볼 때 63~30점 수준이었다. 주목할 점은 육사와 국방대가 20점과 18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두 곳이 군사정권 시절 엘리트 등용문이었음을 보여준다. 외국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하버드대가 13점(208개 교육기관과 교류)을 받아 20위에 올랐다.

허브 대학은 세대별로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상위 대학들 간 격차가 줄어들고, 순위 바뀔 때마다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다. 386세대부터 연세대를 누르고 전체 2위에 오른 고려대의 경우 50년 이전 출생 세대에서는 58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60년대 출생 세대에서는 66점으로 서울대와 격차를 좁혔다. 이런 가운데 386세대부터는 서울대를 제외한 상위 대학에 몰렸던 비중이 10~20점 감소하는 등 교류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런 변화의 선봉에는 KAIST가 있었다. KAIST는 50년대 출생 세



대에서 처음 9위에 오른 데 이어 386세대 때는 6위로 치고 올라왔다. 대학원 중심인 대학에 인재가 몰리고 졸업 후 타대학 진학도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학계와 문화계 진출이 많았던 이화여대는 포스트 386세대에서 6위권에 진입했다. 자료를 분석한 '사이람' 김기훈 대표는 “대학의 엘리트 배출 인원 격차가 줄고 있는 것은 학벌 위주의 사회가 퇴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파워 엘리트 3만1800명 중 서울대 학부 출신은 33%였다. 고려대(9%), 연세대(8%), 한양대(5%), 성균

기획특집 2

관대(4%)가 그 뒤를 이었다. 파워 엘리트의 59%가 상위 5개 대학을 졸업했다. 지방대 중에서는 경북대와 부산대가 922명과 886명을 배출했다. 10명 이상의 엘리트를 낸 대학은 125곳이다.

2. 고교별 마당밭은 누구

‘SS’ 출신 이수성 전 총리 1650명과 연결

주례만 지금까지 2000번, 전국에 형님·동생 하는 사람이 5만 명. 이수성 전 총리(현 새마을운동 중앙회장)를 소개할 때 늘 화제가 되는 얘기다. 전설적인 마당밭로 알려진 이 전 총리는 학맥도 두터웠다. 직업을 감안하지 않고 순수하게 학교 인맥만을 따졌을 때 서울고-서울대 법대-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나온 이 전 총리는 모두 1650명과 연결돼 있다. 그의 학맥은 학계, 재계, 정계, 법조계, 의료계 등에 고루 퍼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희태 국회부의장이 그의 대학 동기동창. 후배인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전 총리와 대학 및 학과, 학위를 받은 기간 등이 겹친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손경식 CJ 대표이사 회장, 윤동운 전 체신부 장관, 장기욱·함석재·박종우 전 의원 등 저명인사들이 그와 학연으로 연결돼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경기고,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서울대 대

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다시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에서 석사,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땀다. 여러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밟다 보니 학맥이 쌓였다. 그와 연결된 1648명 중에는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스탠퍼드 대학원이 겹치는 황선영 서강대 교수, 역시 고교·대학·학과가 같은 황주현 교보생명보험 전무(정보시스템 최고 책임자) 등이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도 진 장관과 학연(고교·대학·재학 기간 일치)으로 연결돼 있다.

1232명과 연결돼 있는 황우석 교수의 학맥은 동료인 이문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학사 및 석·박사과정 일치), 박종명 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 같은 분야 인물이 중심이다.

전주고·서울대 외교학과·미국 존스홉킨스대 대학원(석사)을 나온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교수로선 동문 인맥이 다양한 편에 속한다. 조인래 서울대 교수(철학) 외에도 전주고·서울대 동문인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 등 정치인이 그의 학맥(666명)에 포함돼 있다.

반면 신흥 명문고 출신들은 옛 명문 출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 인맥이 얇은 편이다. 우신고를 나온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이 학교 동문 가운데는 학맥이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연결된 엘리트 동문 수는 4명뿐이다. 신흥 명문고 출신들이

학맥을 형성해 특정 분야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줄어든 셈이다.

3. 1위 고교 출신 엘리트 비율 8.8% → 1.6%

전통 명문의 퇴조 : 386세대선 서울 강북 명문 많아 포스트386은 강남권 고교 늘어 전 세대 계속 50위 내 학교 15곳 ·

1950년 이전 출생자(6.3세대)와 50년대 출생자(긴급조치세대)가 주로 고교·대학을 다닌 60년대, 70년대에는 소수 명문고 출신이 엘리트를 독점했다. 하지만 386세대를 길러낸 80년대에는 명문 카르텔이 해체의 길을 걷는다. 엘리트의 산실이 그만큼 다양해진 것이다.

◆ 386세대 신흥 명문의 본산은 서울 강북=본지 조사에서 6.3세대부터 포스트386세대까지 엘리트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여전히 경기고였다. 경북고·서울고·경북고·경남고·부산고·광주일고 등 전통 명문도 전체 순위가 상위에 올라 있다. <그래픽 참조> 현재의 파워 엘리트 중 50년 전후 출생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74년 고교 평준화 시행 이후 신흥 명문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6.3세대에서 긴급조치세대로 바뀌면서 파워 엘리트 배출 상위 50위 안에 8개 학교가 새로 들어온다. <이하 순위는 1면 표 참조> 신일

엘리트 배출 주요 여고

경기 122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혜자씨

이화 71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시미자씨



고(15위, 이하 기사에서 괄호 안 순위 표현 생략). 성남고(35), 경성고(37), 충남고(41), 한성고(42), 숭문고(43), 경희고(44), 경신고(46) 등이다.

충남고를 제외한 7개 교가 모두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였다. 서울 강북의 사립고는 다음 386세대에도 돌풍을 주도했다. 엘리트 많이 배출한 50개 교 가운데 새로 우신고(5위), 대일고, 여의도고(공동 15), 배문고(26), 홍대부고(31), 용문고, 명지고, 동대부고(공동 34), 대성고(40), 서라벌고(46) 등이 포진했다. 이 무렵 경기고가 굳건히 지켜오던 전국 1위도 전주고로 넘어갔다.

◆ 포스트386세대는 강남 편중=포스트386세대에서는 서울 강남 지역이 신흥 명문의 창구였다. 이 시절 상위 50개 학교 중 서울지역 학교는 29개. 이 중 강남 지역 학교는 휘문고(3), 서울고(4), 상문고(4), 단대부고(7), 경기고(10), 잠실고(16), 영동고(16), 서초고(16), 개포고(16), 현대고(25), 한영외국어고(25), 반포고(25), 중동고(36), 서문여고(45) 등 14개(48%)였다.

386세대까지만 해도 상위 50위 중에 강남 지역 학교가 6개(경기, 휘문, 서울, 영동, 상문, 배재)뿐이었음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늘었다. 명문고 독점 구조의 해체, 다양화 속에서도 새로운 편중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대구의 달성고, 능인고, 영신고(이상 15), 성광고(20), 영남고(23), 심인고(26), 대건고(40) 등도 대거 순위 안에 포함됐다. 달성고 외엔 모두 사립학교다.

◆ 386세대부터 처진 전통 명문=판도가 바뀌면서 전통 명문의 수난기가 시작됐다. 386세대 이전까지 전국 10위 안이던 부산고와 경남고가 50위권 밖으로 밀렸다. 10~20위권이던 제물포고, 경북사대부고, 서울사대부고, 대광고, 20~30위권이던 춘천고, 목포고, 남성고, 성동고, 동아고, 경기여고, 대구상고, 30~40위권의 경주고, 덕수상고, 김천고, 이화여고, 선린상고 등이 같은 길을 걸었다.

386세대까지 선전하다 포스트 386세대부터 엘리트 배출이 줄어든 전통 명문도 많다. 전국 평균 10위권 안팎이었던 경동고, 20위권 안팎이었던 배재고, 보성고, 동성고, 청주고, 동래고, 대구고, 30위권의 대륜고 등이 이런 경우다. 물론 전통 명문이 다시 도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실제 50년대 출생자들의 경우 전국 46위였던 순천고는 다음 세대에 침체기(57위)를 겪었으나 386세대에서 7위, 포스트 386세대에서 1위로 재도약했다.

◆ 모든 세대 50위 안에 든 학교는=경기고는 386세대부터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40년간 줄곧 10위권 이내를 유지했다. 경기고처럼 세대를 통틀어 상위 50위 안에 '개근한' 명문고는 모두 15개다. ▶ 서울고(2→3→9→4) ▶ 경북고(4→4→20→11) ▶ 용산고(11→10→26→45) ▶ 중앙고(15→12→34→45) ▶

기획특집 2

휘문고(23→13→8→3)▶중동고(20→18→40→36)▶양정고(28→28→40→25)▶경북고(3→2→9→16)▶전주고(7→11→1→16)▶광주일고(8→5→46→45)▶대전고(9→9→3→36)▶진주고(17→26→6→8)▶마산고(18→19→2→16)▶계성고(21→23→12→45) 등이다.

4. 엘리트 비율 따져보니 포스트 386선 1위와 45위 고교 큰 차이 없어

1950년대를 전후한 출생자들 가운데 엘리트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경기고, 포스트386세대의 엘리트 배출 1위로 떠오른 대원외국어고와 순천고, 같은 1위라도 옛날 1위와 요즘 1위의 의미는 사뭇 다르다. 엘리트 점유율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50년대 전후에 출생한 엘리트 중 경기고 출신의 비율은 8.8%에 달했다.

그러나 대원외국어고나 순천고 출신이 차지하는 엘리트 점유율은 1.6%다. 경기고가 한창이던 시절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점유율이 줄어든 것이다.

경기고가 1위이던 시절, 대원외국어고나 순천고의 엘리트 점유율은 10위권 밖에 해당한다. 포스트386 세대에 들어와선 1위와 나머지 학교들과의 격차도 좁혀졌다. 실제 순천고나 대원외국어고와 45위권 학

교들(점유율 0.4%)의 차이는 크지 않다. 요즘 들어 고교별 엘리트 배출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 학교가 엘리트를 독점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과거엔 소수 명문고 출신들이 학벌로 뭉쳐 이너 서클(inner circle) 화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곤 했다. 과거 정권에선 특정고 출신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되자 'K1=경기고, K2=경북고'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특정 학맥의 세력화가 가능했던 것은 엘리트 숫자가 타 학교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386세대부터는 명문고의 순위 변동이 심하고, 배출 엘리트의 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신흥 명문고들이 과거처럼 세력화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5. 노 대통령은...학연 지본 '0' 직업 인맥 1008명

노무현 대통령의 학연자본(연결된 엘리트 동문 숫자)은 얼마나 될까. 노 대통령이 졸업한 부산상고는 쟁쟁한 인문계 고교를 제치고 1950년대 이전 출생한 엘리트 배출 숫자 면에서 26위를 기록했다. 세대를 통틀어 배출한 엘리트를 봐도 전국 40위에 오른 명문고였다. 지금은 인문계로 전환해 개성고로 이름을 바꿨다.

출신 학교,학과,학위 과정,재학기간 중 세 가지 이상이 겹치는 엘리트

트끼리 학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이번 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학연자본은 '0'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은 66년 부산상고를 졸업했으며, 30여 년 만인 98년에 고려대 노동대학원 및 정책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닌 인사 중 다시 학위 과정까지 접친 엘리트 동문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의 인맥이 취약한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과 직업연줄로 연결된 엘리트 숫자는 100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정당, 정부,국회 쪽 인사들이다.

노 대통령이 현재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학맥보다 직연의 힘이 컸다는 얘기가 된다.

한편 본지 조사 결과 분석대상 파워 엘리트 3만1800명 중에는 부산상고 출신의 현 정부 고위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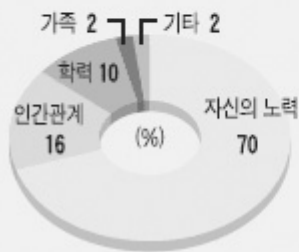
윤광웅 국방부 장관, 오정희 감사원 사무총장, 성윤갑 관세청장,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지엽 석탄공사 사장, 이성태 한은 부총재, 차의환 청와대 정책수석실 혁신관 리비서관, 권찬호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꼽힌다. 신상우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영동 전 국정홍보처장도 부산상고 출신들이다. 부산상고 엘리트들의 요직 진출 비율은 전임 정권보다 늘어난 상태다. 이들이 모두 참여정부 들어 해당 직위에 발탁되거나 승진했기 때문이다.

파워 엘리트에 물어보니

엘리트 기준

일정 기준(공무원 3급, 판·검사, 대기업 부장, 종합병원 과장급 등) 이상의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 명문대 출신이나 고학력 소지자 같은 학벌 기준이 아님.

성공 비결은



존경하는 인물은 (단위:%)



※본지, 전체 분석대상 파워 엘리트 3만1800명 중 769명을 임의로 뽑아 설문조사

※조사 시점: 9월 13-23일, 표본오차: ±3.5%p

벤처기업인은 학연·직연 약해

(단위:명) 학교 인맥 직장 인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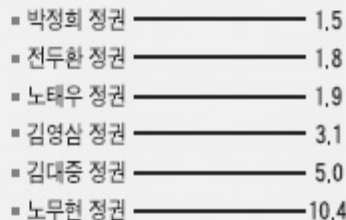
벤처기업인	37.4	1.6
전체 엘리트 평균	69.7	40.4

※학교 인맥: 고교·대학 관계로 연결되는 엘리트 동창 수

※직장 인맥: 직장 관계로 연결되는 엘리트 동료 수

※본지, 파워엘리트 3만1800명 중 벤처기업인 1229명 조사

정치엘리트 중 여성 비율 (단위:%)



※정치엘리트: 국회의원+장·차관

SS(서울고-서울대) 등과 함께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명문 엘리트의 상징이었다. KS와 SS 등의 '신화'는 386세대 들어 깨지기 시작했다.

본지 취재팀이 조인스 인물정보에서 뽑은 파워 엘리트 3만1800명을 분석한 결과 1950년대 출생 세대(주로 긴급조치세대) 가운데 7%가 KS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 비율은 386세대에 1.0%, 포스트386세대에 0.7%로 급속히 떨어졌다. SS 출신자의 비율도 같은 기간에 2.7→0.7→0.7%로 감소했다.

지난 40년간 고교의 파워 엘리트 배출 순위는 부침을 거듭했다. 50년 이전 출생세대(주로 6.3세대)에서 긴급조치세대로 넘어오면서 엘

리트 배출 상위 50개 고교 가운데 불과 8개 교(16%)만 바뀌었다. 서울의 경기고, 서울고, 경북고와 함께 경북고, 경남고, 부산고, 광주일고 등 몇몇 지방고교가 20년 이상 상위권을 휩쓸었다.

긴급조치세대에서 고교 평준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386세대로 바뀌면서 50위 안에 우신고, 영동고, 여의도고 등 22개 교가 새로 진입했다. 명문고의 44%가 물갈이된 것이다. 부상한 신흥 명문도 대부분 10년을 버티지 못했다. 386세대에서 포스트386세대로 넘어오면서 50위 고교(공동 순위가 많아 학교 수로는 68개 교) 가운데 60%가 바뀌었다. 세대가 바뀔수록 물갈이 속도(16→44→60%)가 빨라진 셈이다.

포스트386세대에 부상한 학교는 대원외고, 순천고(공동 1위), 학성고(4위), 단대부고(7위), 달성고(8위), 오성고(11위) 등이다. 주로 특목고와 서울 강남 소재 고교, 비 평균화 지역에 있거나 특성화 교육을 한 지방 고교였다.

연세대 양재진(행정학)교수는 “전통 명문이 쇠락하면서 부상한 신흥 명문이 20여 년 뒤 강한 파워 엘리트 집단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특정 학교 출신의 엘리트 독점 구조가 해체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

7. 80년대 명문고 톱 50 10년 새 60%가 밀려나

전통 명문고 엘리트 독점구조 깨져 30~40년 전 경기고 출신 열 명 중 5,6명은 서울대에 입학했다. '경기고-서울대'의 영문 이니셜인 KS는